



◆ '얼꼬마 인디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연주하는 초등부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흥겨운 난타공연

#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

## 인천 해광학교, 특별활동 발표회

지난 2009년 12월 23일 인천 십정동에 위치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해광학교(교장 명선목)에는 작지만 마음이 풍성해지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해광학교의 학생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1인 1악기 시행으로 누구나 악기 하나씩을 선택해 연습해왔다. 학생뿐만이 아니다. 한달에 두 번 전문가를 초빙한 특별활동 시간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악기 연습에 구슬땀을 흘렸다.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각각 다르기에 완성도 또한 수준급에서 기초적인 수준까지 제각각이었지만, 1년여의 시간동안 갈고 닦은 학생들의 연주실력은 비장애인까지 아우르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공연에는 크로마하프와 오카리나, 피페, 팀휘슬 등 자주 접할 수 없는 악기들의 아름다운 선율에서부터 난타, 사물놀이 등의 흥겨운 공연이 두 시간 내내 이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초등부의 어린 학생들이 준비한 바이올린 연주는 미숙한 실력이 빚어낸 엇다른 음색이 오히려 발표회를 찾은 관중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호응을 이끌어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전날 "수준 높은 음악보다는 마음에 와닿는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던 학교 관계자를 증명하듯 학부모 및 관객들은 수차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발표를 담당한 체태병 생활반 교사는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작은 상처까지도 보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며 "다른 시간보다도 유독 악기 연습하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즐기지도 않고 초롱초롱하게 따라 왔다. 꼭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수업시간을 즐겼다"며 감회가 남다름을 설명했다.

## 인천연수초, 벨트형 다문화 중심학교 운영 종료

다문화 교육 중심학교로 지정되어 벨트형 운영방식에 따라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인천연수초등학교(교장 김인평)는 지난 12월 21일, '다하나반 폐강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초, 4월 개강식 이후 실시한 다양한 활동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

료증 전달식 및 활동 우수학생들에게는 상품 전달식도 가졌다. '다하나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학생마다 교사결연, 한국가정-다문화 가정 결연, 대학생 결연 등을 실시하여 1년간 활동을 해 왔으며, 다양한 체험활동 및 진통학습활동도 실시하여 꾸준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

회적응력 향상에 힘써왔다. 각 결연에 따른 활동으로는 특히 한국어 학습 및 부족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활동에 만족하고 학습하는 환경에도 점차 적응력이 향상되었음이 만족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폐강식에는 다하나반 학부모들과 학생들, 학생들의 담임교사, 자원봉사단 어머니들까지 함께 참석했다.

# 장애유아 교육 시설 확충

##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완전 취학 위한 학급증설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 3월 1일 인천예림학교에 전공과를 신설하고, 기존 전공과 1학년을 2학급씩 증설하며, 유·초·중·고등학교에 36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부터 적용되는 만5세 장애유아와 고등학교과정 의무교육에 대비해 공립유치원 4학급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8학급을 신(증)설하며, 초등학교 17학급, 중학교 7학급을 신증설해 총 36개 특수학급이 늘어나 유·초·중·고등학교에 총 448개 특수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아와 취약유아학생 현황 파악 및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학 희망 조사를 실시해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특히 연수 지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에 비해 고등학교 특수학급 수가 부족해 금년 해송고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였고, 인천여자공고와 인천생활과학고에 특수학급을 각각 1학급씩 증설했다. 이로써 연수지역의 특수학급 부족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여 학생의 요구에 따라 희망학교와 근거리 배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취약 유예중인 중도중복학생들의 완전취학을 위해 인천신흥초교와 부평중초교 내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검암초등학교 내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각 1학급씩 총 4학급의 중도중복장애(뇌병변) 특수학급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는 취약유예중인 중도중복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와 인천특

수교육 정책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공립정신지체 학교에만 설치되었던 전공과가 사립 특수학교인 인천예림학교에도 2년 과정으로 설치되며, 기존의 정신지체학교 전공과는 1학년이 1학급 증설되어 모두 7개의 학급으로 편성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도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남 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근거리 통학 및 희망학교에 배치되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너의 마음 곧 내 마음

### 인천갈월초, 한마음가게

인천갈월초등학교는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일환인 '한마음 가게' 활동을 통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장애로 인한 편견 없는 학급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마음가게'란 장애아동이 학습도움실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모은 후 한 마음 가게 열리는 날 통합학급 친구 2-3명을 초대하여 다양한 영역의 흥미 있는 활동(분식코너, 문구코너, 쿠키, 액세서리, 양초 등 만들기 코너)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러운 장애이해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연 4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마음가게는 지난 12월 21일 4회째 실시되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이뤄내고 있다.

항상 모든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수동적일 수 있는 장애아동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통합학급친구들을 초대하고 도움실에서 모은 화폐로 자연스럽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능동적인 자세와 자신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통합학급아동에게는 장애아동을 도와주었던 또래 도우미에 대한 보상과 서로 간의 관계개선시간을 통해 활동 후 학급으로 돌아간 아동들이 다른 아동에게도 이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냄으로써 서로 어울리는 지속적인 분위기 형성과 자연스러운 통합교육활동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 '크리스마스 케익 맛 최고'

## 인천서부교육청, 다문화 가족과 케익 만들기 행사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이상철)은 지난 12월 24일 서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문화 가족 9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케익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 앞서 이상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런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2009년 한해를 되돌아보

는 계기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가족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몽골, 태국 등 10개국 다문화 30가족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엄마와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화합을 위한 다문화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실시했다.

케익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한 어머니가 유유코 가족은 "크리스마스 케익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다문화 가정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과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혜 꿈나무도서관 문 활짝

인천인혜학교(교장 이영근)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새로이 문을 연 꿈나무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꿈나무 도서관은 2009년 12월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문자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운눈빛(시각학습실), 고운소리(청각학습실), 고운손길(촉각학습실), 꿈자람터(자유활동공간)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꿈나무 도서관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인 도서 외에 DVD, CD, 시음드북, 각종 촉각학습교구를 활용하여 교실에서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

육사람터(성인 열람실)를 별도로 마련하여 교사,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교육 관련 전문 서적과 자료를 비치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고 있다.

이번 개관기념 행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만의 이색적인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우리 인물 이야기' 원화와 도서 전시회, 책 읽어주는 선생님과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독서 포토제니, 서가 책 속에 숨겨진 행운권을 찾으면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책 속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개관기념 행사는 인혜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책을 만나고 책 읽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교사들에게는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 최상의 재료와 최선의 요리 질로서 고객님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 맛 · 멋 · 가격 · 위생 · 대민족 - 주미정의 멋과 맛 서비스에 위해 보세요!

- 상건제, 가족모임, 각종단체모임 최적의 장소
- 250평의 넓은 공간 홀마다 형형색색 멋스러운
- 식후 비즈니스는 무료 커피숍에서 풍류 있게
- 80여명 동시수용 주차장은 언제나 여유만만



부천중원동동성4가서점(이화여자대)








Korea Restaurant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준의동 93-3 | 예약문의 (032) 682-8838